

'멀쩡히 살구 있는 우릴 보라'

4일까지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 일원서 전북독립영화제 열려
개막작 유월·탑차·다운 포함 40편의 독립영화 총 27회 상영

제19회 전북독립영화제가 지난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총 5일간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과 CGV 전주교사 3관에서 열렸다.

개막식은 31일 오후 7시 CGV 전주교사 1관에서 진행됐다. 개막작으로는 유준상 감독의 <탑차>, BEFF 감독의 <유월>, 이우수 감독의 <다운>까지 총 3편의 개막작이 영화제의 문을 열었다.

'멀쩡히 살구 있는 우릴 보라'라는 슬로건을 내건 제19회 전북독립영화제에서는 국내 및 지역의 우수한 장·단편영화 40편이, 2개 상영관(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 CGV 전주교사 3관)에서 5일간, 총 27회 상영된다.

전북독립영화제는 장르·소재 면에서의 다양성과 우수한 작품성을 모두 갖춘 중소규모의 영화들을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사)전북독립영화협회가 주최하고 전북독립영화제 집행위원회가 주관하는 전북독립영화제는 2001년 전주시민영화제로 출발하여 꾸준히 지역의 영화와 관객이 만날 기회를 제공해왔다. 2007년 명칭을 전북독립영화제로 변경하였고, 올해로 영화제는 19번째 생일을 맞이했다.

이번 영화제는 2개의 경쟁부문과 2개의 비경쟁부문으로 구분되며, 경쟁부문은 다시 국

내 및 온고를 경쟁 부문으로 나뉜다. '국내 경쟁'은 전국의 영화를 대상으로, 지역경쟁인 '온고를 경쟁'은 전북지역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영화를 대상으로 한다.

국내 경쟁 23편(장편 4편, 단편 30편)과 온고를 경쟁 6편(장편 1편, 단편 5편) 외에도 '초청' 부문을 통해 <여름 비>, <파테르>, <귀어 053>과 같은 국내의 우수한 작품 3편을 만날 수 있다. 또한 '메이인 전복' 부문은 온고를 경쟁 부문의 상영작을 제외하고 전북지역에서 다양한 경로로 만들어진 참신한 5편의 영화를 선보인다.

도 황철호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멀쩡히 살구 있는 우릴 보라'라는 영화제 슬로건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이들이 그 결과물을 관객들 앞에 선보이고 소통하는 자리가 바로 전북독립영화제라고 생각한다. 영화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이 영화제의 주인공이 되어 즐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화관람 후 감독, 배우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영화의 공금한 점과 뒷이야기를 들 수 있는 '관객과의 대화(GV)'도 놓쳐서는 안 되는 전북독립영화제의 모미다. 옹골진상(대상) 1편, 다부진상(우수상) 1편, 아무진상(우수상) 1편 등을 시상하는 시상식은 11월 4일에 열린다. /김진성 기자



이우수 감독의 '다운'



유준상 감독의 '탑차'



BEFF 감독의 '유월'

마음을 기대고 싶은 작품

박갑순 시인, 부안문학상 수상... 창작지원금 1백만 원 수여
시상식은 8일 부안컨벤션 웨딩홀서 출판기념회와 함께 열려

시인 겸 수필가이자 아동문학가인 박갑순(54)씨가 제5회 부안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한국문인협회 부안지부(회장 김영열)는 최근 부안의 한 음식점에서 올해 부안문학상 심사위원회를 열고 작품 수준, 참여 및 기여도, 작품집 발간 등을 기준으로 3명의 수상후보자를 올려놓고 심정한 결과 심사위원 전원이 박갑순 씨를 제5회 부안문학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김영 심사위원은 "박갑순 시인은 부안문인협회의 창립에 앞장서서 열정을 쏟는 시인으로 지금은 고향을 떠나 살지만 고향 문화발전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특히 그의 시집 '우리는 눈물을 연습한 적 없다'는 아무리 지치고 힘들더라도 슬픔에게 지지 않겠다는 의지의 선언이다. 박 시인의 삶을 아는 사람들은 그가 얼마나 절절한 가을을 바로 이해하게 된다. 누구라도 마음을 기대고 싶은 작품집이다"라고 평했다.

박갑순 씨는 "패티른 감기몸살을 칭칭 감고 쉬고 있을 때 수상 소식을 듣게 되었다"며 "부안에서 '비밀기문화동인'을 결성



하여 퇴근 후 바빠 움직였던 시절이 생각한다. 주산부면장님이셨던 고관석 선생님, 배금자, 김기찬, 양정숙, 전안숙 선생님 등등. 그때는 겁 없이 쓰던 시절, 시가 되는지 되지 않는지 일단 써서 동인을 이끌어주시던 김기찬 선생님과 함께 합평을 하면서 한 편 한 편 쌓아갔던 시절이 오늘의 영광을 가져온 것 같다. 언제 어디서나 부안 사람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고향 부안문인협회에서 주는 상을 수상하게 되어 한없이 기쁘고 감사하다"고 수상 소감을 피력했다.

박갑순 씨는 부안 출생으로 1998년 '자유문학' 시, 2005년 '수필과비평' 등단했다. 한국문인협회, 한국여성문학인회, 전북문협, 부안문협, 평명문협 회원, 순수필동인, 월간 '소문문학' 편집장을 역임했다. 2018년 마태문학상(문학 부문)을 수상했으며, 시집으로 '우리는 눈물을 연습한 적 없다', 수필집 '꽃망울 떨어질라', 투병기 '민머리에 그린 꽃핀', 동시집 '아빠가 배달돼요'가 있으며, 현재 교정을 전문으로 하는 '글다듬이집' 주인으로 있다.

한편 시상식은 11월 8일 오후 3시 부안 부안컨벤션 웨딩홀 3층에서 부안문학 제25집 출판기념회와 함께 열린다. 수상자에게는 창작지원금 1백만 원이 수여된다. /부안=김석진기자

고창군, 어린이 판소리 왕중왕전 참가자 8일까지 접수

고창군이 올해의 어린이 판소리 왕중왕을 가리는 '제32회 전국 어린이 판소리 왕중왕전' 참가자를 11월 8일까지 접수한다.

이번 대회는 차세대 어린이 판소리 명창을 발굴·육성하고 판소리 여섯마당을 집대성한 동리 신재효선생의 문화예술사적 업적을 기념하며 유업을 계승하기 위해고창군(군수 유기상)과 KBS전주방송총국(총국장 윤제춘)이 공

동 주최하고, (사)동리문화사업회가 주관한다. 대회는 해가 거듭될수록 명성이 높아지고 있다. 올해 대회는 고창 동리국악당에서 예선(10일)을 거쳐 예선을 통과한 7명의 어린이가 본선(11일) 경연을 펼친다.

왕중왕전은 KBS전주방송총국이 전국에 방영해 어린 꿈나무들의 판소리 기량을 널리 알릴 예정이다.

고창군은 후학 양성에 업적을 남긴 동리 신재효의 유업을 계승하고 판소리 발상지인 고창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동리대상, 상설 국악공연, 대한민국 판소리 한마당, 판소리 체험 등의 각종 공연·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해 명실상부 '대한민국 판소리 수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대회 참가는 2018~2019년 국악대회에 참가해 입상한 전국의 남·여 초등학생으로 고창 문화의전당(063-560-8041)에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장수레드푸드 가을음악회에서 추억을 만드세요"

내일 누리파크서 오전 10시부터 공연

오는 11월 2일 장수군 대표 농촌테마공원인 누리파크에서 장수레드푸드 가을음악회가 화려하게 개최된다.

지난 31일 장수군에 따르면 이번 가을 음악회는 오전 10시부터 버스킹 공연을 시작으로 240만 팔로워를 기록하고 있는 'BJ 창형 거리

노래방', 'BJ 기누다'와 장수군 농특산물을 소개하며 진행하는 먹방라이브, 미스트롯 출신 인기가수 '숙행' 공연 등이 열릴 예정이다.

이와 함께 우수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및 시음·시식 이벤트와 어린이들을 위한 무료 체험공방들도 열려 즐거움을 더할 예정이다.

푸드체험장에서는 화형피자 만들기 체험을 50가족 한정 1만원 체험이벤트가 진행되며 전

문 셰프가 장수 레드푸드 농산물을 이용한 요리시연 및 무료 시식행사도 펼쳐진다.

이밖에도 장수군자원봉사센터 주관 '하나바다 행복 나눔 장터'와 전라북도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장수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준비한 '이동식 놀이교실 프로그램' 및 '공동육아 나눔터 가족캠프'까지 무료로 즐길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장수누리파크가 앞으로 장수군의 관광, 체험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문화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관광활성화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공예품과 핸드메이드 등 다채로운 즐길거리 '풍성'

3일까지 전북 공예축제 한마당 열려
도내 20여개 공예업체 전시·판매

2019 전라북도 공예박람회가 지난 31일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관광객 및 도민에게 전라북도의 전통공예 문화를 알리고, 공예작품의 교류 활성화를 통한 지역 화합과 공예품 판로 개척을 위해 4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전북도가 주최하고 전라북도공예협동조합이 주관하는 이번 박람회는 도내 20개 공예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내 컨벤션홀에 마련된 부스에서 11월 3일까지 4일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진행된다.

특히 이번 박람회는 대통령상이 수여되는 대한민국공예품대전과 함께 많은 관심을 끌 것으로 기대되며, 대한민국공예품대전에는 목, 칠, 도자, 금속, 섬유, 귀금속 공예 등 총 234점의 공예품 수상작이 전시된다.

전북도 공예박람회는 전라북도 공예인들의 교류를 통해 지역의 대표적인 공예품이 한데 모여 우아함을 자랑하는 전시·체험관매장은

로써, 다양하고 이색적인 다기·식기세트, 생활자기, 장식용품, 침구류 등 다양한 생활용품에서 액세서리까지 총 500여점이 전시·판매되어 공예작품의 진수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자리이다.

특히, 박람회 기간동안 타 지역과 차별되는 공예품을 만들어 전시·판매함으로써 전라북도를 방문하는 내·외국인에게 지역 공예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지역에서 활동하는 공예인의 창작욕구 증진 및 공예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견인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석훈 도 일자리경제국장은 "도는 박람회를 통해 전라북도 우수공예품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동으로 판매되고 전국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면서 "박람회에 참여하는 업체에는 소비자 및 직접 교류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함으로써, 도내 공예업체를 홍보하고 전라북도 공예산업이 한층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축! 전주매일 창간

www.kosca35.or.kr

도전과 개척의 역사!

'전문건설인'의 미래를 향한 도전은 멈춤이 없습니다.

묵묵히 건설현장을 지키며 지역경제의 주축으로 그 역할을 다해온 전라북도의 전문건설인!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북도회는 전문건설인의 권익보호와 지위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전문건설업의 발전과 더불어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북도회 제11대 회장단·감사·운영위원

회 장	김 태 경 (유)석파토건	임 근 홍 (유)유림건설
부 회 장	김 삼 문 (유)향림조경	이 중 석 (유)웅비건설
감 사	김 동 수 (유)도곡건설	유 흥 중 (주)누리토건
운영위원	박 충 귀 (유)기능건설	방 한 응 (유)도암건설
	박 재 영 (유)대흥건설	정 용 남 (유)서울안전기업
	조 공 섭 (주)삼일공사	김 성 오 (주)유경건설
	전 성 배 (유)아일건설	김 재 주 창남건설(주)
	김 장 기 장미조경건설(주)	김 판 기 (주)케이건설
	장 태 수 (유)한성토건	
		백 석 현 (유)산하조경
		최 인 태 석금건설(주)
		조 성 호 (주)일성건설